



2020년 4월 8일 | Global Asset Allocation

Asset Allocation Issue

글로벌 펀드플로우,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년 주식형, 채권형 펀드 모두 누적 자산 순유출

글로벌 자산시장에 있어 금년 1분기는 최고와 최악의 양 극단을 동시에 경험하는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였다. 지난 해 사상최고치로 마감한 뉴욕증시는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어 금년 역시 상승추세로 한 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3월 들어 코로나19는 결국 팬데믹 단계로 올라섰고 증시와 금리는 극단적인 하락국면으로 돌아섰다. 펀드플로우 역시 3월 초를 전후해서 일제히 유출로 전환되었다. 주식형펀드는 2월 하순부터, 채권형 펀드는 3월 초순부터 자산유출이 시작되어 4월 초까지 금년 누적 자산유출 규모는 주식형, 채권형 각각 \$25.4bn, \$134.2bn에 이른다.

4월 초를 기점으로 주식형 펀드 자산유입 전환, 북미 중심의 선진국 펀드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며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는 4월 첫 주 \$8.1bn의 자산이 순유입되었다. 2월 중순 이후 6주 만에 첫 자산유입이다.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시장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산유입은 일단 선진국 증시에 대해 먼저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북미지역 펀드가 현재 자산유입의 중심이 되고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여전히 자산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출 규모는 크게 줄었다. 시장안정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신흥국 펀드에도 자산유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흥국 내에서 중국 중심의 아시아신흥국이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증시는 현재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며 실제로 3월 중순부터 자산유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 역시 조만간 자산유입 나타날 것, 투자자들은 시장안정 전망

채권형 펀드에서는 아직 자산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다. 5주 연속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유출 규모는 4월 들어 크게 감소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 다소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4월을 기점으로 채권형 펀드에도 자산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국채펀드에서는 자산유출이 연장되고 있지만 회사채펀드에는 자산유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리스크가 우려되었던 크레딧 시장에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다시 위험선호가 시작된 시장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어떻게 종결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벤트에 의한 시장충격은 이슈 해소 시 빠르게 회복되는 특성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조만간 자산시장은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펀드플로우는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sset Allocation Issue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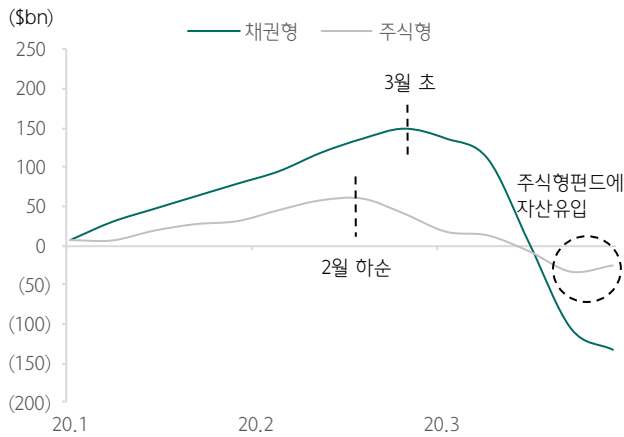
대체투자/자산배분 김훈길
02-3771-7528
Kim.hg@hanafn.com

RA 김중훈
02-3771-3112
joonghun@hanafn.com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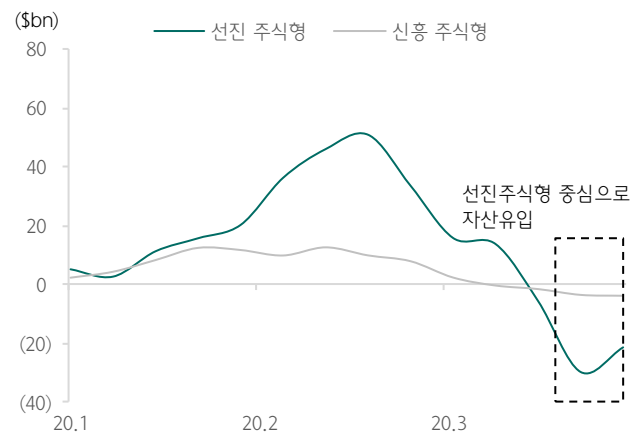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4월 이후 주식형 펀드에 자산유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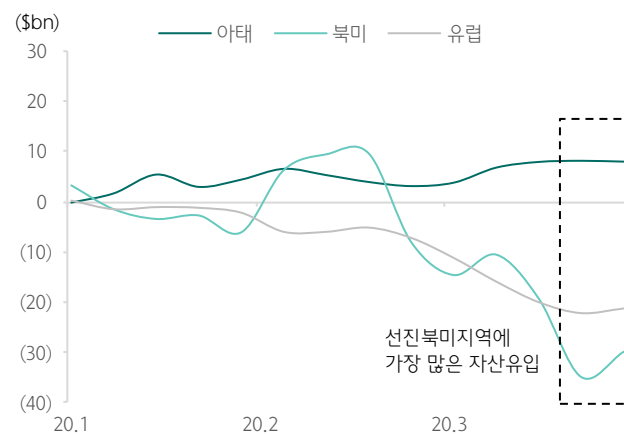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산유입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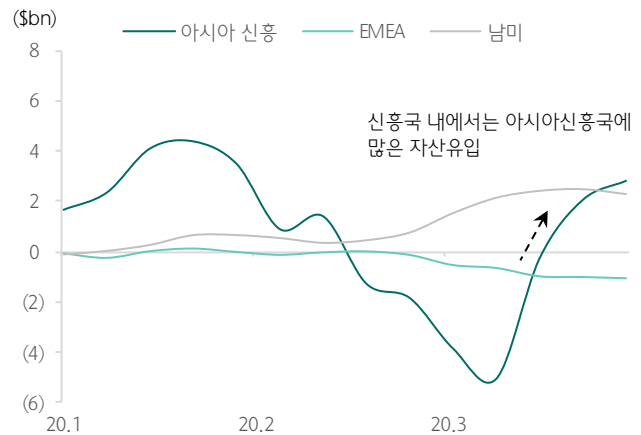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선진국 펀드 내에서 북미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자산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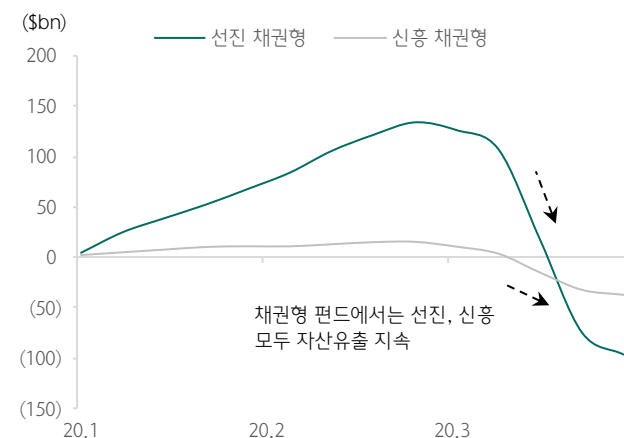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4. 신흥국 지역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신흥국에 빠르게 자산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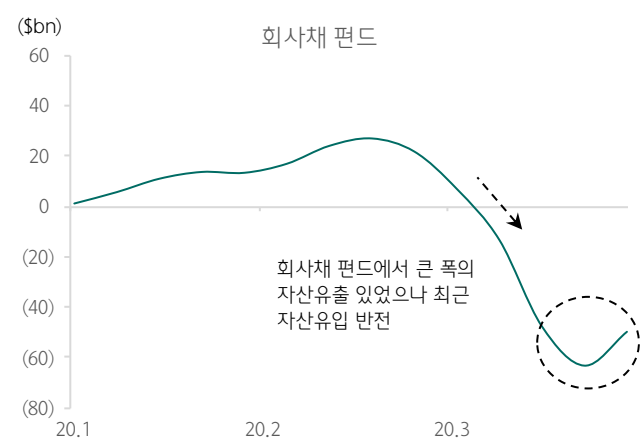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채권형 펀드에서는 선진, 신흥 여전히 자산유출 진행 중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6. 회사채 펀드에는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자산유입 재개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